

전상우 특허청장 초청 혁신 특강 개최



한국특허정보원은 지난 9월 6일 오전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임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상우 특허청장을 초청해 혁신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특별강연은 「고객과 성과중심의 특허행정혁신」이라는 제목 하에 ‘특허행정 혁신 추진성과’와 ‘특허청 4대 혁신전략추진’, ‘지식재산강국으로 가는 길’ 등 3가지 소주제로 약 80분간 진행됐다.

전 특허청장은 이날 강연 모두에서 “정부기관과 공기업, 공공기관 등도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는 민간기업과 같은 수준의 혁신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특허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특허정보원 임직원 여러분들도 초우량 특허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혁신 활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또 특허청 4대 혁신추진 전략으로 ‘고객감동 경영, 성과주의 경영, 6시그마 경영, 지식경영’에 대해 설명하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지식기술혁명시대의 도래는 우리에게 도전임과 동시에 다시없는 도약의 기회”라고 강조하고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등 지식재산 유관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4강으로 도약하자”고 역설했다.

‘2007 Design & Patent Technology Seminar’ 성황리에 개최

“21세기 디자인의 경쟁력, 특허에서 찾는다”를 모토로 한국특허정보원과 (주)전자신문인터넷은 지난 7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2007 Design & Patent Technology Seminar’를 개최했다. 최근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하는 요소가 상품의 품질과 기술력에서 점차 디자인으로 이동하는 추세인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디자인 관련 업계 및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모토로라, KTF, 팬택 등 국내 굴지의 통신업체와 특허청 심사관 및 변호사 등이 강사로 참여하여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분쟁사례 및 대처방안, 디자인 국내 출원동향, 각 사의 디자인 개발 전략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한국특허정보원 김 열 원장은 “디자인 산업의 기술동향 및 미래 전망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권리 취득 및 보호를 위한 기업의 심도있는 디자인 전략이 절실하며, 이번 세미나는 국내 디자인 개발 및 보호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